

2022.05.31



Daishin Research Center

Daishin Research

Morning Meeting Brief

2022.05.31



섹터	제목	작성자
[산업 및 종목 분석]		
포스코케미칼	[Issue Comment] GM 양극재 JV 투자 및 북미 진출 본격화	전창현
손해보험업	[Issue Comment] 2분기도 어닝서프라이즈!!	박혜진

포스코케미칼 (003670)

전창현 changhyun.jeon@daishin.com

투자의견

BUY

매수, 유지

6개월
목표주가

170,000

유지

현재주가
(22.05.30)

132,000

GM 양극재 JV 투자 및 북미 진출 본격화

포스코케미칼-GM 양극재 JV 투자 공시

- 25년 양산 목표로 3,500억원 투자해(GM 620억원) 하이니켈 NCMA(N8x) 연산 3만톤 캐파를 캐나다 퀘벡주에 구축. JV '얼티엄 캠(Ultium CAM)' 지분은 포스코케미칼 85%, GM 15%로 구성

얼티엄 셀(LGES-GM 배터리 JV)향 중장기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

- 공급 주체는 얼티엄 캠. 25년~32년말 8년간 8조원(21년 메탈 가격 기준) 규모로 물량은 NCMA 24만톤(3만톤 x 8개년) 수준. 얼티엄 셀 테네시 2공장향 납품 예정. 오하이오 1공장은 광양 6만톤 캐파로 대응

시사점

- 22~24년 실적 가이드스에는 변화 없으나, 25년 이후 중장기 성장 기반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
- 북미 최대 EV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. 포스코케미칼(양극재) - LGES(배터리) - GM(EV)으로 이어지는 북미 EV 및 배터리 밸류체인 확보. 25년~32년말 8조원 규모의 8년간 계약으로 중장기 북미 매출 가시성 확보. 공급 레퍼런스 확보가 중요한 자동차 산업 특성상 선점 효과에 따라 추가 계약 수주에도 유리
- 매출 확대와 더불어 고마진의 하이니켈 양산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. 기존(83%) 대비 니켈 함량이 높아진 하이니켈(86~87%) 제품으로 제품 경쟁력 향상. 30년 기준 양극재 캐파 61만톤 중 20만톤이 북미에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추가적인 북미 캐파 증설 발표 모멘텀 기대

손해보험업

2분기도 어닝서프라이즈!!

박혜진

hyejin.park@daishin.com

투자의견

Overweight

비중확대, 유지

커버리지 3사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여전히 70%대

- 4월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 정점 대비 크게 감소하며 고속도로 통행량은 거의 정점에 육박. 그러나 확진자 수 급감이 사고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음. 커버리지 3사의 2분기 자보 손해율 평균 78.7%(QoQ +1.8%p, YoY +1.0%p)로 전망

백내장 수술 청구 금액 4월 들어 급감, 금리 급등에도 K-ICS비율은 양호

- 3월 절정을 기록한 백내장 수술 청구 금액은 4월 들어 급감하는 모습. 3월 평균 400억 상회했으나 4월 120억 원~130억원, 5월에는 100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. 따라서 커버리지 3사의 2분기 평균 위험손해율은 91.5%(QoQ -0.6%p, YoY -2.1%p)로 전 분기,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
- 금리급등으로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며 보험사들의 자본이 감소하여 RBC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K-ICS 4.0기준 상위사의 비율은 150%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.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LAT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주요 손보사의 자본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

커버리지 3사 2분기 합산 순이익 7,436억원으로 컨센서스 7,150억원을 상회할 전망

- 자보 손해율은 여전히 70%대에 머물러 흑자 기초를 이어갈 것이고 백내장 수술 청구건수 감소로 위험손해율은 하락할 것이기 때문. 또한, 일드 상승에 따른 투자이익이 우리의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 실제 이익은 우리의 추정을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

Compliance Notice

- ✓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✓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✓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- ✓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